



파마시아동일(주)

- 생명과학분야의 첨단업체 -

신록의 계절인 5월의 어느날 우리 탐방일행은 강남구 신사동에 자리잡은 파마시아동일주식회사를 방문하였다.

스웨덴에 있는 파마시아의 발전된 과학기술력과 동일교역의 풍부한 경험을 접목시키기 위해 1989년 11월에 두 회사의 합작회사로 설립되었다고 하는 이 회사는 본 협회와 관련된 여타의 동위원소 업계와는 다른 모습을 풍기고 있었다.

현대식 인테리어의 사무실 그리고 거의 모든 일을 업무전산화를 통해 처리하고 궁극적으로 해외의 Pharmacia사와 전산망을 구축할 것이라는 비전에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신생회사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동일교역의 생명과학부가 독립 발전되어 나온 회사인 까닭으로 비록 설립된지 2년이 채 안되는 회사이지만 오랜 연륜과 풍부한 경험이 쌓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모습속에서 이 회사는 생명과학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조직되어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크게 유전공학과 생화학에 필요한 기기 및 시약-Chromatography, EPH, Mol. Bio에 관련된 System 및 시약-을 취급하는 부분과 본 협회와 실질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인 제2영업부 즉 병원이나 Commercial Lab.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RI시약과 Counter분야에서 세계최선두 업체인 Pharmacia Wallac의 Gamma & Beta Counter등을 주로 취급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협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제2영업부는 동위원소업계의 후발업체로서 고충이 없지도 않지만 Allergy 진단분야에서 쌓아온 두터운 명성 그리고 RI장비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항상 새로운 의욕으로 고객들과 만나고 있으며, 새로이 암환자의 Pain Control을 위한 Drug Delivery System을 소개하며 그 시장을 확충하고 있다는 말에서 후발업체다운 패기를 또한 느낄 수 있었다.

급속히 발전해 가는 생명과학분야를 선도해가며 그의 조인자로서 역할을 다해 마지않는 이 회사는 항시적인 사원들의 재교육 그리고 수시로 행해지는 해외 연수교육을 통해 과학·의학분야의 협조자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판매 그리고 운영 또한 그 이후까지도 항상 함께 한다는 정신속에서 단순한 판매의 차원을 넘어 같이 연구하고 분석하는 자체 실험실의 운영 그리고 그 실험실을 통해 자체 및 해외인사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Workshop Seminar를 통해 새로운 정보 및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동반자의 모습을, 부산과 대전지사 등을 통한 지방고객과의 빠른 만남에서 신속한 모습을, 서비스팀의 열과 성을 다한 After Service에서 그 회사에 대한 신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Biomanager'란 사보를 통해 항상 고객들에게 풍부한 응용자료와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에서 생명과학과 의학계를 선도해가며 협조자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회사의 의지와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박기역사장님을 정점으로 합심단결하여 미래에 도전하는 기업으로서 항시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전 사원이 과학기술의 동반자며 협조자라는 사명감에 차있는 모습에서 이 회사의 밝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